

GS칼텍스, 중고차 거래시장에도 참여

GS칼텍스가 중고차 거래에 뛰어들면서 번거롭고 짜증나는 중고차 거래를 핸드폰 한 통화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.

인터넷 중고차 쇼핑몰 알개닷컴(대표 안남훈)은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7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.

알개닷컴은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고객이 알개닷컴(www.yalge.com) 콜센터(1588-1984)로 전화를 하면 고객 차량의 기본정보를 파악한 후 전국 30여 중고차매매센터 담당자에게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매를 실시한다.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중고차매매센터들만 선별해 고객과 연결한다.

따라서 고객은 경매결과를 보고 매매 여부만 결정하면 돼 더 이상 이곳저곳 가격을 알아보고 다닐 필요가 없다.

한편, 중고차를 살 때에도 알개닷컴에 전화해 희망차종을 지정하면 전국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차량 중 최적의 차량을 물색하여 핸드폰으로 알려준다. 엔진, 미션에 대한 3개월 5000km의 품질보증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지는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.

알개닷컴은 야후코리아와 GS칼텍스의 합작기업으로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생활 전반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7/13>